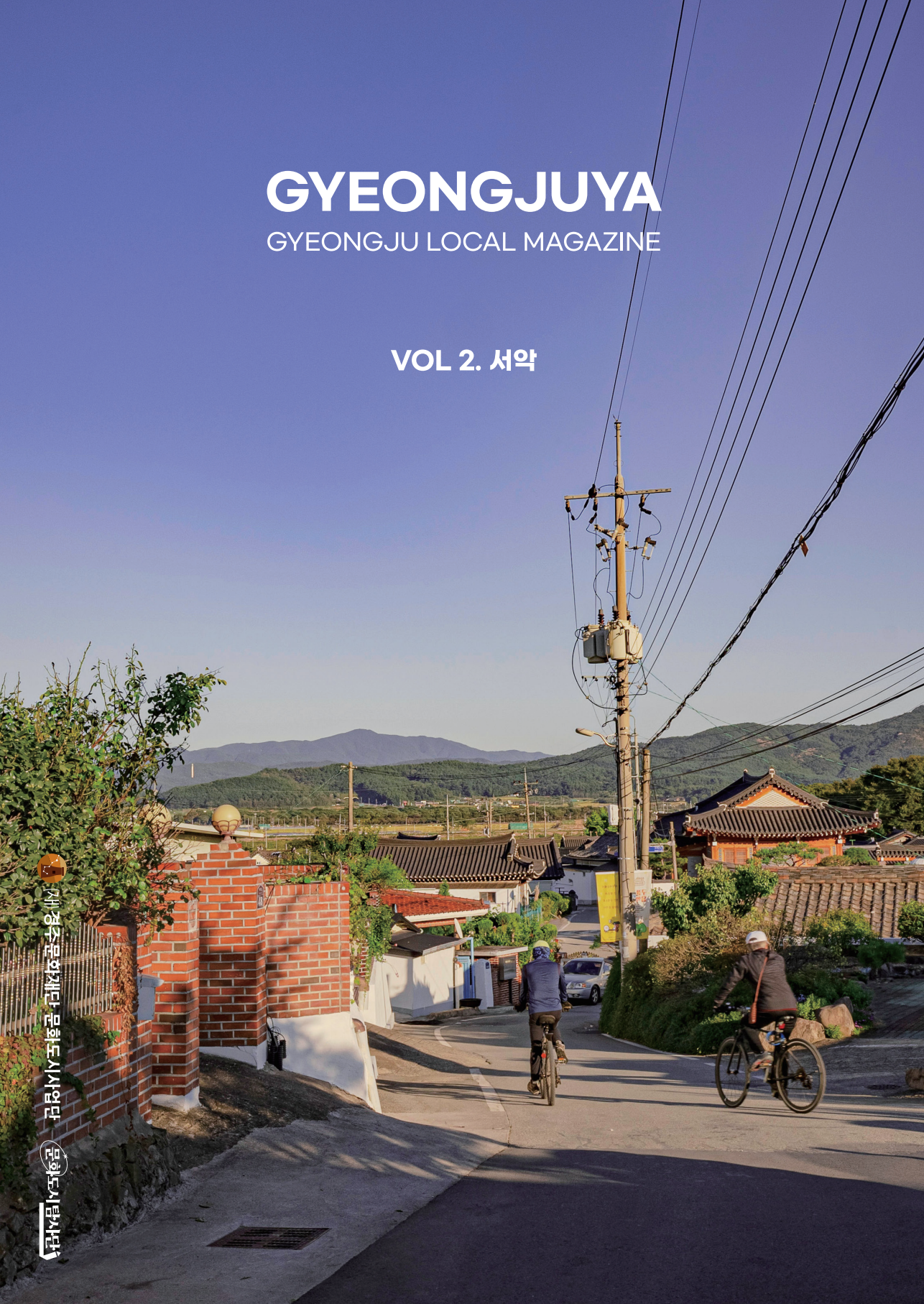


GYEONGJU

GYEONGJU LOCAL MAGAZINE

VOL 2. 서약



GYEONGJU YA

GYEONGJU LOCAL MAGAZINE

발행인

경주문화도시사업단

참여필진(글 및 사진)

권수빈, 김성표, 정수정

편집

정수정

창간 2022. 12.

인쇄 디나래

본 매거진에 수록된 모든 글과 사진은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책의 내용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발행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출판물은 경주문화도시사업단이 주관한 2022 경주문화도시탐사단 사업을 통해 발행되었습니다.

GYEONGJU YA

GYEONGJU LOCAL MAGAZINE

VOL 2. 서약

CONTENTS

PROLOGUE

SPECIAL

서악마실길을 걷다

- 도봉서당
- 서악동삼층석탑
- 카페헤다
- 누군가의 책방
- 김인문묘

HISTORY

-서악동과 3.1운동

EPILOGUE

PROLOGUE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한 동네 서악동.

시내에서 떨어진 장소라 조금은 한적하다 느껴질 수 있지만
조용한 시골 분위기와 옛 건물이 어우러져
오히려 평화롭다는 기분이 드는 동네

높은 건물들이 아닌 낮은 한옥식 건물들이 곳곳에 모여있어
시내와는 다른 경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서악동]의 스토리를 담은 동네 매거진입니다.

SPECIAL





高仰門

도봉서당



도봉서당

서약동에 있는 도봉서당은 조선 중기의 문신 황정의 학덕과 효행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재실이다.
현재는 한옥스테이로 추보재, 연어재, 도봉서당 3채에서 고택체험을 즐길 수 있다.

📍 경주시 서약4길 58

서악동 삼층석탑

도봉서당 뒷편으로는 서악동 삼층석탑을 볼 수 있다.
서악동 삼층석탑은 벽돌탑을 모방한 석탑으로 제65호 보물이다.

이 장소는 작약꽃으로도 유명한데,
5월달에 한참 작약꽃이 만개할때라 다른 분위기의 석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삼층석탑 바로 아래에서는 매년 구절초 음악회가 열린다.
조용한 나무들사이에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즐길 수 있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 경주시 서악동 705-1







누비공방카페 : 헤다

한옥주택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주택 골목길을 산책하다 만나는 카페 헤다. 누비공방카페 헤다라는 카페의 이름처럼 이곳에서는 특별한 누비옷과 소품을 만나볼 수 있다. 누비장인이 손수 만든 손누비 한복과 린넨 옷, 그리고 다양한 악세사리 및 소품들. 서약의 소담한 분위기와 어울려 따뜻한 느낌을 준다. 별드는 창가에 앉아 창 너머를 바라보면 걸어진 서약풍경과 더불어 저 멀리 남산 봉우리도 보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커피 한잔과 직접 담은 유자청을 엮은 유자스콘 한 입하면 근심 걱정은 온데 간데 없어진다.

📍 경주시 서약4길 45-16





누군가의 책방

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니다 발견한 작은 책방
일반 가정집같은 분위기에 편하게 구경할 수 있었다.

전시된 책들은 시중에서 볼 수 없는 독립출판물 책들이 많아서 신기했다.

그리고 책들과 함께 가구 사이사이에 작은 소품들을 보는 재미도 있는 서점이었다.

📍 경주시 서악2길 32-16



김인문묘

“우와 경주에 왔구나.”

구 경주역이 운영될 때 타 지역에서 기차타고 경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목적지인 경주임을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김인문/김양 묘다. 김인문은 태종무열왕의 둘째아들, 김양은 김인문의 후손으로 맞은편에 있는 태종무열왕을 앞에 모시고 겸손하게 잠들어있다.

통일신라시대의 주역 태종무열왕과 김유신 장군 못지않게 신라 통일의 크고 작은 공을 세운 분이 많을 터. 그 중 김인문은 66년의 생애 동안 당나라와의 외교를 전담해 66년의 생애 동안 1/3을 바쳐 지금으로 치면 외교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했다.

📍 경주시 서악동 1010-2

일제 강점기 1915년

엄동설한의 매서운 날씨에 경주, 영덕, 영일군에서 일제가 징수한 세금을 운반하기로 되었던 마부의 집에 한 남자(권영만)가 찾아온다.

이 남자는 마부에게 지병 치료를 위해 대구까지만 마차를 태워달라고, 애걸복걸 간청한다.

그 시각 또 다른 한 남자(우재룡)는 마차가 지나가는 효현교 나무다리를 부수어 마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한 후 추위를 온몸으로 이겨내며 마차가 지나가길 기다린다.

새벽녘 마차는 부서진 다리를 건널 수 없어 얇은 개울물을 건너게 되고, 마차의 속도가 느려지자 권영만은 짐칸에서 세금행랑을 가지고 빠져나와 유유히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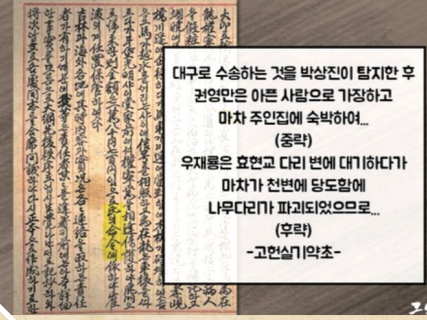
총독부 기관지는

“경주에서 8천 7백원 분실, 도적은 조선사람”이라고 보도했지만, 일제는 단서조차 잡지 못했다.

[KBS 역사스페셜 2010. 4월 방송]

[역사저널 그날 2022. 2월 방송]

광복 이후,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집니다.
 독립운동가 박상진에 대해 기록한 <고헌실기약초>에
 일제 세금마차 탈취 사건의 전말이 적혀있었습니다.



고헌 박상진(1884~1921)

이 사건은 광복 후,

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의 일대기 <고헌실기 약초>에 소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1915년 8월 대구 달성공원에서 항일무장투쟁 조직으로 대한광복회가 결성되었다.

광복회 지휘장 우재룡, 권영만 의사가 독립군 자금 마련을 위해 일제로부터 세금마차에서 강탈한 세금은 현재가로 약 2억 5천만원으로, 독립군 군자금으로 보내졌다.

대한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은 경주군 외동읍에서 태어나 자랐다.

1906년 양정의숙입학, 1910년 최초 판사임 용되었으나, 경술국치의 죄책감으로 부임을 거부하고 독립운동에 나섰다.

이후, 친일부호와 조선총독의 암살, 신흥무관 학교지원, 일제의 세금강탈과 금광습격 등 활동으로 봉오동, 청산리대첩과 만주의 독립군자금을 지원하다가 1918년 2월 일제에 체포되어 4년의 옥고 끝에 1921년 8월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하셨다.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에 묘소가 있다.

경주는 동학을 낳고
동학은 『3.1만세혁명』과 『어린이 날』을 낳았다.

“동학의 자금과 인적 네트워크가 없었으면,
3.1만세혁명과 임시정부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 백범 김구 -

3.1 운동은 단순한 운동(Movement)이 아니였었고, 유네스코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야 할 충분한 가치를 지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립을 향한 민중들의 희생을 통한 숭고한 항거였기에 이하 3.1만세혁명으로 칭한다.

3.1 만세혁명을 이야기하면 누구나 유관순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이 있다. 그는 바로 민족대표 33인의 대표 손병희 선생이다.

14년간 해월 최시형을 스승으로 모시고 동학의 대중화와, 전봉준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지휘하였고, 25년 후 동학의 최고 리더로서 3.1만세혁명을 이끈 우리 민족의 리더이자, 위인이다.

해월 최시형에 의해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25년 후

그의 제자 의암 손병희에 의해 1919년 3.1 만세혁명이
동학농민혁명의 변주곡으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났다.



의암 손병희(1861~1922)

동학인들이 항일 독립운동으로 이어가자,
일제가 동학을 영원히 몰아내고자 하였고, 일제의 탄압에 맞서며 이에 대한
항거로 손병희 선생은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개창한다.

민족대표 33인의 대표이셨고, 보성사를 운영하면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였고,
고, 보성전문학교(고려대학교 전신), 동덕여학교(동덕여대 전신)를 인수하며,
교육을 통한 구국에 헌신하셨던 그는 소파 방정환의 장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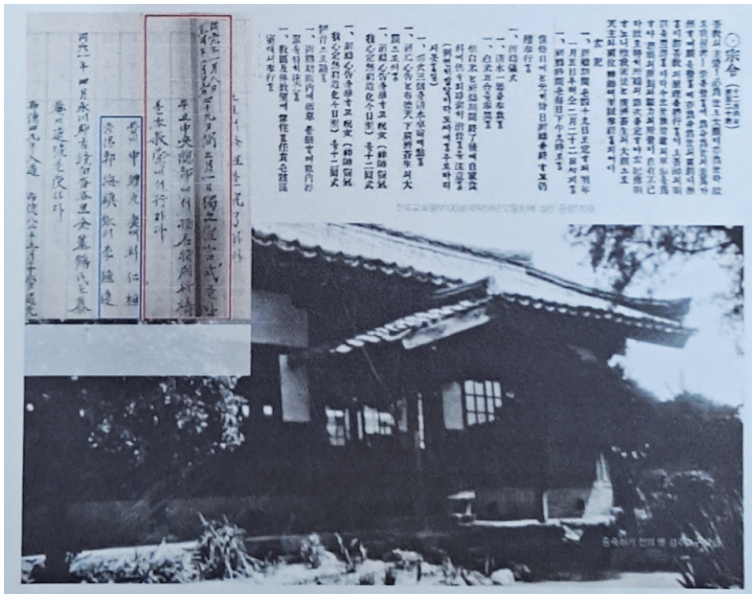
민족대표 33인중 15분이 동학(천도교) 그 중 9분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리더로
활약하셨다.

천도교 중앙대교당(종로) 건립을 위해 당시 300만 교인들이 남자들은 짚신을 삼고, 여자들은 싹바느질, 논밭과 황소를 팔아 모은 100만원 중 건축비용 27만원을 제외한 거금을 3.1만세혁명,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당시 한옥 1채 1000원)

결국, “동학(천도교)의 자금과 인적 네트워크가 없었으면,
3.1만세혁명과 임시정부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백범 김구>

손병희 선생은 대한민국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에 추대되었지만, 독립을 위한 길을 선택하셨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출소 후 1922년 5월 결국 순국하신다.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 이기도 하지만,
손병희 선생 순국 100주년의 해이다.



3.1만세 혁명 성공기원 및 국권회복을 위한 49일 기도처 (경주시 황오동 228-1번지)

경주에는 1919년 1월 8일부터 2월 25일까지 49일 동안 <3·1만세혁명 성공기원 및 국권회복>을 위한 기도처가 있었음, 2017년 경주시 황오동 천도교 경주교구 연혁지 발견으로 확인되었고, 경주는 당시 영남일대 3·1 만세혁명을 위한 본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특정 종교를 떠나, 3·1독립혁명사는 경주가 낳은 수운 최제우와 해월 최시형 그리고, 의암 손병희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으로 새로 정립되어야 한다.

해월생가 복원과 해월학습기념관이 조속히 건립되어, 미래이상인 동학사상을 경주가 브랜드화함과 아울러 경주의 독립운동가, 독립유적지, 독립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라나는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사 공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해월 최시형 생가터 답사(경주시 황오동 227번지)



경주 3-1 독립만세운동 표지석 (금관총 부근)

100여 년 전에는
여기가 경주 읍성 남문이 있었던 곳으로
변화가여서 사람들 출입이 제일 빈번했던 곳이다.

EPILOGUE

권수빈

[문화도시 탐사단]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처음 만들어본 매거진.

하나의 책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알고있었지만 직접 만들어보니 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래도 처음보는 사람들과 한팀이 되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다.

경주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매력을 느꼈으면 좋겠다.

김성표

우리의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이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다!

나의 삶이 역사가 될 수 있기에, 내가 살아가는 곳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 보다 더 의미있는 삶이 있을까?

탐사단 활동을 통해 팀원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고마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누군가에 의해 계속이어져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 문화를 선도해나가는 문화강국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정수정

카페나 도서관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잡지. 잘 정리된 글과 멋진 사진.

잡지를 만들어보기 전에는 잡지 한 권쯤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직접 부딪혀 잡지를 만들며 생각이 달라졌다. 잡지 한 권에는 큰 세계와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담겨있다.

하나의 이야기가 실기기까지에는 주제 및 컨셉 선정, 아이템 수집 및 선택, 사전답사, 인터뷰어 컨택, 인터뷰 준비, 인터뷰 거부 및 설득, 자료 조사, 발로 뛰는 취재, 기사 작성 및 수정의 과정을 거친다.

또, 한 장의 사진을 건지기 위해서는 2~3번이 고한 장소를 가본다. 50컷 정도를 찍으면 2~3컷 정도 괜찮은 사진을 건질 수 있다.

작은 책 한 권이지만 수많은 고민과 솔한 노력, 고뇌가 담겨있다.

나도 앞으로 잡지나 책을 본다면 좀 다른 태도로 볼 것 같다.

이 한권의 잡지를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은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면 좋겠다.

GYEONGJU YA

GYEONGJU LOCAL MAGAZINE

경주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아카이빙 프로젝트 <문화도시 탐사단>' 활동 결과물로
해당 저작권은 경주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단 및 문화도시 탐사단에 있습니다.